

목숨 내놓고 일하는 영세 건설현장

광주·전남 올 산재 사망 124명중 건설업만 41명

중소형 현장 안전불감증 심각...광주 54% 급증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건설업에서만 41명이 발생했다. 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산업 재해자 수는 4383명으로, 이 중 124명이 중대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해자 수(4711명)는 6.9% (328명)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100

명)는 24%(24명) 급증한 것이다. 광주지역(광주와 인근 전남)에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9월까지 광주지역 사망자는 45명이었으나, 올해는 절반 이상(24명, 53.3%) 늘어 69명에 달했다. 광주지역 재해자의 73.7%, 사망자의 6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종 사망자는 13명이었지만, 올들어

20명으로 전년 대비 53.8%(7명) 증가했다. 광주·전남 전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186명으로 이 중 41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재해자(1186명)는 7명 줄어든 데 반해 사망자(39명)는 오히려 2명 늘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전체 41명 중 추락으로 인해 14명이 숨졌고, 교통사고 7명, 총돌 6명, 감전·끼임 5명, 붕괴 3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5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현장은 영세해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하나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고 여러 곳의 사업

장을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와 교육, 건강진단 등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사고발생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운수창고통신업종도 사망자가 급증했다. 이 업종에는 지난해 사망자가 없었으나 올들어 9명이 발생했다.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업무가 늘면서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호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보호구만 착용해도 사망재해자의 절반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달부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돈 모으고 환경도 보호

농협 '더불어 예금' 출시

환경을 생각하는 이색 예금상품이 농협에서 출시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8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예금 수익의 일부를 환경보존기금으로 조성하는 활용하는 신상품 '채움 자연과 더불어 예금'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농협은 예금판매액(연평잔)의 0.1% 해당액을 전액 부담으로 조성해 ▲국립공원의 보전 및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개인 100만원 이상, 법인 1000만원 이상,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송기동기자 song@



"강진이 키운 특산물 사세요" 광주신세계는 강진군과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백화점 1층 식품매장에서 '강진군 농수특산물전'을 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강진군 농수특산물전'은 강진지역에서 생산된 간척지 도망쌀·새송이·토하젓·낙지 등 40여종의 농수특산물과 강진청차·생활자기 등이 전시·판매된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X 20년	4조 9 6 8 7 4 2
		6조 4 8 7 9 3 4
2등	100,000,000	4조 9 6 8 7 4 1
		4조 9 6 8 7 4 3
		6조 4 8 7 9 3 3
		6조 4 8 7 9 3 5
3등	10,000,000	각조 3 1 8 2 0 1
4등	1,000,000	각조 3 6 7 3 6
5등	200,000	각조 7 4 2 5
6등	2,000	각조 7 3
		각조 8 4
7등	1,000	각조 8
		각조 9

광주 아파트 경매 낙찰률 역대 최고

10월 94.6%...전달보다 60% 올라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80건으로, 이 중 265건이 낙찰돼 낙찰률 94.6%를 기록해 전달(35.1%)보다 크게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단독 응찰해 낙찰률이 높았다. 하지만 낙찰가율(73.7%)과 평균 응찰자 수(1.7명)는 저조했다. 경쟁률은 광산구 운남동 운남7단지 주유아파트 49.8㎡형에 19명이 몰려 가장 높았고, 낙찰가율 역시 이

파트가 감정가(7000만원)의 133%인 9333만원에 낙찰됐다. 전남지역의 10월 아파트 경매 건수는 41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63.4%로 전달(82.9%)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물건이 몇 건 되지 않아 낙찰가율은 102.2%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토지 물건수는 전달(1219건)보다 늘어 1345건을 기록해 전국 대비 가장 많았다. 평균 응찰자 수는 2.2명으로 하락하고 낙찰률 34.2%, 낙찰가율 67.8%로 전달과 비슷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크로비오틱을 아십니까?

육수를 만들어 토란잎 나물을 하고 소고기를 볶아 토란국까지 끓이고 나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토란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내 밥상에 다 들어 있고 최근 유행이라는 '마크로비오틱'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풀어보려면 '커다란'이라는 뜻의 '매크로(macro)'와 '생명의'라는 뜻의 '바이오틱(biotic)'이 조합된 말인데 일본서 유래된 탓에 우리나라에 일본식 발음으로 소개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건강식으로 알려졌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마돈나, 톰 크루즈 같은 스타들도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마크로비오틱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런 유명세 때문만은 아니다. 마늘도 버리지 않고 먹는 일이나 신도불이같은 원칙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방법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늘 실천해보려 노력 중이다. 그럼 내가 늘 마음에 담아둔다는 마크로비오틱의 네 가지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일물전체,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통째로 먹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뿌리와 껍질조차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신도불이, 유명한 말이나 다 아실 테고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자연생활과 음양조화인데 이 정도면 음식 사조라기보다는 철학적 경지에 이른다. 어느 부분에서는 사찰 음식과도 많이 닮아 있고, 또 야토과 치료나 다이어트 밥상으로 인가라고 하니 힐링 푸드이기도 한데 사찰음식처럼 육류나 유제품을 즐기지 않지만 야채 안 먹는 것은 아니며 마크로비오틱의 경우 재료를 써는 일부러 요리와 약간의 공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당근을 썰며 그동안의 방식대로라면 먼저 껍질을 벗겨야 한다. 그러나 껍질도 먹을거라. 당근을 길게 놓고 땅콩과 위쪽의 에너지가 한 잎에 들어갈 수 있게 어슷썰기를 추천한다. 되도록 자제 수분은

감자 껍질·파 뿌리도 먹을거리
현미·효소 등 건강밥상 생활화



로 조리되도록 물을 최소한 사용하며 불도 약불로, 그리고 익은 야채를 새 야채에 얹어 볶아 불 사용도 최소화한다. 이러하다 보니 유기농은 필수이며 들어가는 조미료도 천연이거나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메이플 시럽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음양조화나 자연생활의 원칙을 따르자면 계절 제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백미보다는 현미 그리고 집에서 담근 장류부터 효소 음식을 권장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버리지 않고 모두 먹으며 계절 건강밥상을 차리자는 말이다. 하여간 그 뒤로 어지간하면 파 뿌리는 씻어서 잘려 두고 벗긴 감자 껍질도 육수 내릴 때 넣어 보았고 브로콜리대도 버리지 않고 주스로 만들어 먹었다. 간혹 브로콜리대도 장아찌를 담는 분도 봤는데 한번 해 봐야겠다. 물론 내 방법이 마크로비오틱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다 보니 설명이 길었다. 하지만 착한 요리가 건강함을 준다는 내 생각은 확고하고 그 에너지는 다시 돌아와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리라 믿는다.

tip 야토피나 비에요 좋은 주스 만들기
감관에 간 무즙 1/4컵에 사과즙 1/2컵을 섞어 마시면 몸의 열을 내려 줘 증상이 완화된다.
<담양택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만기 지난 예·적금에 추가이자

한달내 약정이율의 50%...중도 해지시 기간 만큼

예금이나 적금을 든 후 만기가 돼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예·적금에는 지금까지 이자 혜택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이자가 주어진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지난 예금, 이자 붙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액 예·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 가량의 극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대출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 연 6%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수지맞는' 장사였다. 만기가 돼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후 한달 내에는 연 2%, 이후 3개월 내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래전부터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Canon 스토어 광주점 OPEN

오픈기념 특가 한정판매!!
이벤트 기간 : 11월 15일까지

- ▶ EOS 500D 바디 소비자 ₩818,000 → ₩555,000
- ▶ EOS 500D (18-55렌즈포함) 소비자 ₩918,000 → ₩650,000
- ▶ IXUS 300HS+CASE 소비자 ₩429,000 → ₩262,000
- ▶ IXUS 310HS+CASE 소비자 ₩399,000 → ₩291,000
- ▶ POWER SX30IS+CASE 소비자 ₩599,000 → ₩495,000

EOS 바디 + EF 렌즈 = 더블 캐시백

각 관공서, 기업체, 납품전문업체 및 도매

Canon 스토어 광주점 TEL. (062) 383-3000
-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 -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의 대결인 행사”

-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 각종 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집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